

# “전북교육재단 설립할 것”

###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불평등 해소·학부모 부담 경감 위해 지속가능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아동·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 후보가 교육 불평등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전북교육재단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정책 발표를 통해 교육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지역과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은 '지속 가능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재단을 설립해 장학 및 복지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성장 단계에 맞춘 아동·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입학부터 진로



선택까지 필요한 비용을 공공이 분담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학부모들의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통학 버스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교통비 무상화와 함께 참고서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 구입비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운동회 초등 돌봄 100%

책임운영제'를 도입해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지자체와 대학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지역학생 지역대학 진학 시 등록금 지원' 방안을 마련,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천 예비후보는 "교육은 가장 공정한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형편과 지역 차이가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도록 전북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 세계 최고 글로벌 공동연구소 출범

### 전북대, 퍼듀대와 전략적 파트너십... 피지컬 AI 등 연구 협력 구축 공동 연구·복수학위·세계적 석학 초빙... 글로벌 수준 교육·연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학·연구 역량을 보유한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와 손잡고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을 구축했다.

전북대는 지난달 31일 교내 산학융합플라자에서 '전북대-퍼듀대 공동연구소(JBNU-Purdue Research Institute, JPRI)' 개소식을 개최하고, 양 대학 간 전략적 협력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과 퍼듀대 디미트리오스 페롤리스(Dimitrios Peroulis) 부총장을 비롯해 캠퍼스통합기술원 노상훈 원장, DH그룹 이정권 회장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퍼듀대학교는 공학·항공우주·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는 미국의 대표적 연구중심대학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 기술을 선도해온 기관이다. 이러한 퍼듀대와의 협력은 전북대의 연구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력은 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과 '우수연구기관 간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양 대학에 각각 고등연구소를 설립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전반에 걸친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앞서 양오봉 총장은 지난 1월 퍼듀대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교수 공동 임용 및 초빙, 공동연구 수행, 학부 및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교육과 연구 전반에서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설립된 고등연구소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전북대에서는 첨단반도체 산업학과 등 18개 학과 25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퍼듀대에서는 기계공학 분야 Martin Byung-Guk Jun 교수 등 주요 연구진이 함께한다. 여기에 현대로템, DH오트네스 등 산업계가 참여함으로써 정부 대형 연구과제와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이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전북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피지컬 AI(Physical AI), 첨단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전북대는 퍼듀대의 저명 석학을 석좌교수(Distinguished

Chair Professor)로 초빙해 세계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 기반 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경수 기획처장이 연구소 설립 추진 경과를 발표했으며, 양 대학 간 공식 MOU 체결과 함께 고등연구소 협판식이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북대 피지컬 AI 제조기술실증랩을 둘러보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번 글로벌 협력체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거점 국립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과도 긴밀히 맞물린다. 전북대는 JPRI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양오봉 총장은 "세계 최상위 공과대학인 퍼듀대와의 협력은 전북대가 글로벌 첨단기술 분야에서 교육·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교류, 온라인 복수학위, 우수교수 공동임용, 기술경쟁을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융합 교육·연구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 학교폭력 예방·학생 안전 강화

### 전주교육지원청-완산·덕진경찰서, 신속 대응체계 구축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전주꽃심호텔 세미나실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폭력은 물론 아동학대와 사이버폭력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중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생 안전 관련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와 통학로 주변 순찰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주교육지원청과 양 경찰서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전주꽃심호텔 세미나실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는 그동안 보호관찰소와 함께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협약이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더욱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성영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

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사안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활동을 확대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AEP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진은 전주송원초등학교에서 AEP 시범운영 시연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인공지능 시대 대응 조직 개편 나서

### 전북교육청, 에듀테크 담당에서 AI·디지털 담당으로 변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을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본청 미래교육과 내 에듀테크 담당을 4월 1일부터 'AI·디지털 담당'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편은 AI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흐름에 발맞추고, 정부의 교육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교육부가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인공지능재정비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AI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기존 '에듀테크 담당'이 디지털 기

기과 교육 인프라 보급에 초점을 맞췄

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AI·디지털 담당'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AI 기반 교육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변경은 단순한 명칭 교체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 제4기 장수학생의회 개원식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지난달 30일 특수교육지원센터 합창실에서 제4기 장수학생의회 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새 기수의 출범을 알리는 것을 넘어, 학생의원들이 학생자치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한 참여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학생의원들은 학생의회 운영을 위한 기초소양교육을 비롯해 정책제안서 작성법을 익히고 모의 본회의를 체험했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장수학생의회 운영 규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의원 간의 소통과 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의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학생 스스로 분과위원회 활동 내용을 분석하며 지역 학생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뜻 깊은 계기가 됐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제4기 장수학생의회의 출범과 본격적인 활동이 지역 내 학생자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관훈호 기자

#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 을 하반기 전면 도입한다

### 전북 등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학생별 학습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EP)'을 하반기 전면 도입한다.

전북교육청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AEP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EP는 Google이나 NAVER Whale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토대로 수업 관리를 일원화한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학생들에게는 학력 수준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수업 관련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SSO), AI 기반 학급 대시보드 등을 통한 학습 현황 분석, 빅데이터 LMS 기반 수업 관리 통합 기능 등이 포함된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이후 베타 테스트와 프론트어 교사단 운영, 연구회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도입을 준비해 왔다. 현재는 AI 디지털 선도학교로 선정된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소규모 학교와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을 반영한 전북형 특화 서비스도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

이날 전주송원초등학교에서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AEP 시범운영 시연회가 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공식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AEP는 단순한 온라인 학습 도구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플랫폼"이라며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 경감에도 민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주다움 교육과정’ 본격 추진

### 전주교육지원청, 학교-마을 연계 지역 기반 수업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실 혁신에 나선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대회의실에서 '2026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을 영학년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에는 총 47개교 93개 학년(군)이 선정됐으며, 약 29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다. 초등학교 42개교 84개 학년(군), 중학교 5개교 9개 학년이 참여해 지역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다움교육과정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 환경 인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운영 사례 공유를 비롯해 세부 운영 방향, 수정 계획서 작성 등 실무 중심 인내가 이뤄져 현장 실행력을 높였다. /오상근 기자

# 유치원-초등 연계 강화... 입학 적응지원 본격

### 전북교육청, 올해부터 5세 이음교육 전면 시행... 사업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돕기 위한 '5세 이음교육'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2026학년도 5세 이음교육 운영 사업설명회'를 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초 이음교육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27개원, 2024년 59개원, 2025년

118개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도내 5세 유아에 있는 모든 공·사립 유치원 377개원과 초등학교가 참여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입학 전 이음 중심 언어교육을 비롯해 1학년 통합교과인 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과의 연계 수업, 환경·인성·안전 등 비교과 수업 운영이다. 이를 통해 유아와 학부모의 초등학교 적응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학습 전이



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치원 업무담당자와 참여 교원, 선도교사, 현장컨설팅지원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운영 방향과 우수사례, 행·재정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전북교육청은 현장 컨설팅단 운영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선도교사제 등을 통해 이음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